

해남 땅끝으로 음악여행 오세요

8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통기타 선율과 국악의 만남

맘섬 앞 광장서 '작은 음악회'

올 여름 해남 땅끝마을에서 통기타 선율과 흥겨운 국악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 해남군이 바다를 낀 무대에서 해금과 색소폰 연주를 들으며 저물어 가는 여름날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이색 음악회를 마련했다.

해남군 9월 "8월 9일까지 두달여 동안 매주 토요일 땅끝관광지 맘섬 앞 광장 무대에서 '땅끝 작은음악회'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생활음악협회 해남지부가 주관

하는 '땅끝 작은 음악회'는 회차별로 각각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10회로 구성,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부터 10회 일정으로 이어지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퓨전 국악, 7080 공연, 트롯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또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기자랑 프로그램도 곁들여진다. 땅끝 작은음악회는 지난 2010년부터 해남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 두륜산 도립공원 상가 일대와 땅끝관광지 맘섬 앞 광장에서 진행됐었다. 올해부터는 공연 장소를 맘섬 앞 광장으로 일원화하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지난 7일 열린 첫 음악회에서는 '통기타

와 바다의 연애이야기'를 주제로 꾸며졌다. 통기타, 오카리나, 색소폰 등 지역예술인들은 물론 전국의 생활음악인들이 모여 아름다운 무대로 관광객을 사로잡았다.

또 오는 14일에는 '통기타와 퓨전 국악의 배틀'을 주제로 색소폰과 해금이 밤 하늘을 물들인다.

이 밖에도 '달빛이 만들어낸 소리 향(香)'(21일), '소리! 바다에 미치다'(28일), '소리 늘 애(愛) 빠진 해(海)'(7월 5일), '7080 추억을 노래하라'(7월 19일)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된다.

한체철 한국생활음악회 해남지부장은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이 위로받고 행복을 충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성기자 dia@kwangju.co.kr



지난 7일 해남 땅끝마을에서 열린 '땅끝 작은음악회'를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하고 있다. <해남군청 제공>

소장실 출입문에 딱하니 '출입금지' 표찰

완도 해상국립공원 사무소 '불통 행정' 눈살

최근 '열린 행정'과 '소통 행정'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의 행정 스타일이 구설수에 올랐다. 완도읍에 위치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사무소의 소장실 출입문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표찰을 붙여두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사무소를 찾은 완도 주민들은 '시

대 흐름에 걸맞지 않는 공원 행정' 아니냐'며 미마살을 찌푸리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 '소장실 문턱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근 시·군 주민들이 민원해결을 위해 수시로 완도사무소를 찾고 있는 실정이고, 민원이 잘 안 풀리면 실무선을 떠나 책임

자민 소장실을 찾게 되는데 '열린 행정'을 뒷전으로 하고 위화감을 준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김 모 소장은 "사무소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많이 벌이고 있는데 관련 업자들이 절차없이 소장실을 들락거리 '출입금지' 표지판을 붙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흥도에서 신안군·진도군·완도군·고흥군 등을 거쳐 여수시 돌산읍에 이르는 해안 일대와 도서를 중심으로 1981년 12월 우리나라의 1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진도홍주 '아라리'도 中 수출길

7만달러 어치 계약... '루비콘' 등 6년간 中시장 개척

진도홍주 '아라리'가 중국에 첫 수출됐다. 진도군 대대로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애란)은 지난 1년 동안 중국을 수차례 방문, 중국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최근 중국 광저우에 진도홍주 '아라리' 7만달러(한화 7200여만원) 어치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수출된 진도홍주 '아라리'는 붉은색을 선호하는 등 중국인 소비 성향과 대형마트 판매에 적합해 앞으로 매년 2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대대로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8년부터 6년간 중국시장을 개척해 진도홍주 '루비콘' 등을 총 60만달러 가량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오고 있다. 진도홍주 '아라리'는 진도군 신활력 사업의 일환인 '군수품질 인증제'를 추진하면서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 소비의 대중화를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국내 대형마트와 음식점에서 매년 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대로 영농조합법인은 2012년 대한민국의 품질평화에 진도홍주 '아라리' 제품을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진도홍주 '루비콘'과 진도홍주 38도가 지난 4월 남도 전통술 품평회에서 리큐르 부



문과 일반 증류주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아 2014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한다. 한편 진도 홍주는 쌀, 보리로 빛은 순곡 증류주에 한약재인 '지초(芝草)' 성분을 추출하여 숙성시킨 민속주이다. 전통주로는 제1호인 '지리직 표시제'에 등록하고, 지난 2007년부터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군수품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완도 군립도서관 찾아가는 독서지원 서비스 큰 호응

다문화 센터·복지관 찾아가

소외 어린이 독서 기회 제공

완도 군립도서관(관장 양용안)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독서지원 서비스를 운영, 호응을 얻고 있다.

완도 군립도서관은 지난달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총 10회에 걸쳐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독서환경 조성책 및 책읽기 생활화를 위해 도서관이 직접 기관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완도 군립도서관은 올해 첫 찾아가는 독서지원 서비스 대상 기관으로 완도읍에 위치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선정하고 최근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어린이 20여명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완도 군립도서관 직원이 최근 완도읍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다.

서 선정된 그림책 읽기와 구연동화, 독후 활동 등으로 꾸며졌다.

데레온 안나리자(완도읍)씨는 "그동안 한국어가 서툴러 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독서 수업 참여로 자녀들이 책읽기에 대한 흥미와 부족한 한국어 표현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군립도서관은 앞으로도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정보 소외계층 어린이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의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 다문화가족 센터, 장애인 복지관 등 관내 기관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독서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 문화유산·관광지 사진으로 보존 500개소 1200여건 4월부터 촬영

해남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 등이 사진 콘텐츠로 구축된다. 해남군은 지역의 소중한 모습을 사진 기록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해남의 유산 사진 콘텐츠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 농·수·특산물 등의 소중한 자산을 자료로 구축해 널리 활용에 나가기 위한 것으로,

계절별·주기별(연차적) 촬영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로 해남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군은 사진 콘텐츠로 구축할 대상목록을 각 실과소 및 읍·면을 통해 조사한 뒤 모두 500여 개소 1200건을 선정, 지난 4월부터 한국사진작가협회 해남지부에 의뢰해 촬영에 들어갔다.

촬영대상은 ▲대흥사 북미륵암 등 국보를 포함한 문화유산 125개소 294건 ▲땅끝을 포함한 관광지 105개소 275건 ▲농·수·특산물 관련 29개소 82건 ▲보호수 116개소 232건 등이다. 군은 촬영이 완료되면 사진전용 프로그램도 구축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성기자 dia@kwangju.co.kr

일조 공인중개사

"간절함으로 승부하라"

병원 2층 3층 병의원 임대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면적 306.20㎡

- 수완동 1층 상가 매대 대방노블랜드 2차 인근 매대가 3억
- 금호동 1층 임대(보증금 1억 4000만) 시비 있음
- 양산동 원룸 동남2차 뒷편 엘리베이터,풀옵션 편백 3월중금 매대가 7억3천
- 각화동 원룸 14개 주인세대 매대가 6억9천

나주혁신도시

- 나주혁신도시 근생 D9블럭 3층건물 매대 7억8천 (1층상가, 2.3층 주택)
- 나주혁신도시 근생용지 219평 매대 116,000만원
- 나주 공공임대8블럭 단지내 상가 매대 16평 2층 23,000
- 나주혁신도시 D-9 이주지택지 88평 매대가
- 나주 부곡동 토지 매대 세월지 매대 270,000만원

나주 혁신도시 리버빌딩,금화빌딩
 스마트 플라자 상가 분양
 혁신도시내 단독주택,근생용지 다양 확보

나주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본부 후문 진입로
 ☎ 010-4226-0504

금당공인중개사

저하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계림동 4차선도로점 상업지 571㎡(173)공시지가 7억 은행 5억 5천 9억 5천선 매도 6억 2천
- 월산동 2층주택 농성초등학교 부근 대지 196㎡(59) 건평 162㎡(49) 큰 아파트와 교환도 가능 1억 5천
- 광주은행본점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 11억
- 계림동 대지 542㎡(164) 건물 396㎡(1200) 18억 2천

투자 / 매도 / 교환

- 생촌역부근 고가원 대지 272㎡(87) 건물 493㎡(149) 보증금 3천에 월 600선수익 매도 5억 2천
- 치평중학교부근 대지 386㎡(117) 건평 603㎡(183) 원룸과 투룸 19개 전세 1억 2천에 월 600선 수익 5억2천
- 담양군 대덕면 관내지역 8553㎡(2587)공장·창고·농작업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천
- 무인텔 직할 부지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 1666㎡(504) 대출 13억선 매도 대출인수하고 3천만원
- 생촌동 5.18공원근부근 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기계와 안진 원룸 15개 5억 6천
- 생성동 소방도로점 대지 206㎡(62)공시기에 매도 8500
- 보성특랑면 산 68430㎡(20700)교환가능 1억 3백
- 남구 사동 사직공원부근 10월 준공예정인 주택 85㎡ 은행 1억 5천선 생활여건좋음 2억 3천
- 남구 서동 신축2층주택 대지 136㎡(41) 건물 132㎡ 임대 1억 4천 매도 4천 만원
- 나주시 신평면 발장부지 790㎡(234) 매도 1억천

임대

- 생촌동 운천역부근 원룸촌지역 1층 234㎡(71)오락실 호프집 대형식당 등 복합 보증금 5천에 월 230만원예정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장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건물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명프랜차이즈 입점)
- 북구 신웅동 유치원 건물 매대 23억
- 광산구 신창동 4층건물 매대 27억(보4.1억 월1,240만)
- 서구 풍암동 대로변 3층건물 매 10억(보5천,월20만포함)
- 서구 치평동 5층건물 매대 40억 (보4억 월2,000만)
- 광산구 수완지구 상가건물 매대 110억

대지/전답

- 북구 용두동 1층주거지역 답 1,990㎡ 매대 6억 6천
- 서구 생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760㎡ 매대 16억
- 남구 주월동 대지 2,290㎡ 매대54억(병원최적)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5,000㎡ 매대 12억(창고적합)
- 북구 용전동 생산녹지 답 7,900㎡ 매대 29억(4거리코너)
-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답 2,000㎡ 매대 6억5천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29,800㎡ 매대39억
- 서구 마름동 생산녹지 답 5,400㎡ 매대 20억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800㎡ 매대 16억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대 7.2억
- 벽진동 창고 730㎡ 임대 보 5천 월 450만

광주,전남전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저렴한 고급 별장

정남진 별장은?

접근성, 주변 환경, 천혜의 경관이 어울린 고급 수입 목재를 활용한 건축물로 남해안 최고의 별장! 광주에서 50분 거리에 소재한 정남진 별장은 위의 조건을 완벽히 갖춘 곳!

토지 4,900㎡
 건물 245㎡
 매가 협의

- 정남진 장소,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선 착장과 해수욕장, 바다뷰시, 리조트 등 최고의 위락시설과 어울린 명소에
- 캐나다산 수입 목재 건축물(100%)에 수입 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완벽한 단열, 방음, 방습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별장.
- 완벽한 보안시스템 구축.
- 정남진 별장은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화상담 사절.
 자세한 문의로는 사무실 내방 바랍니다.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